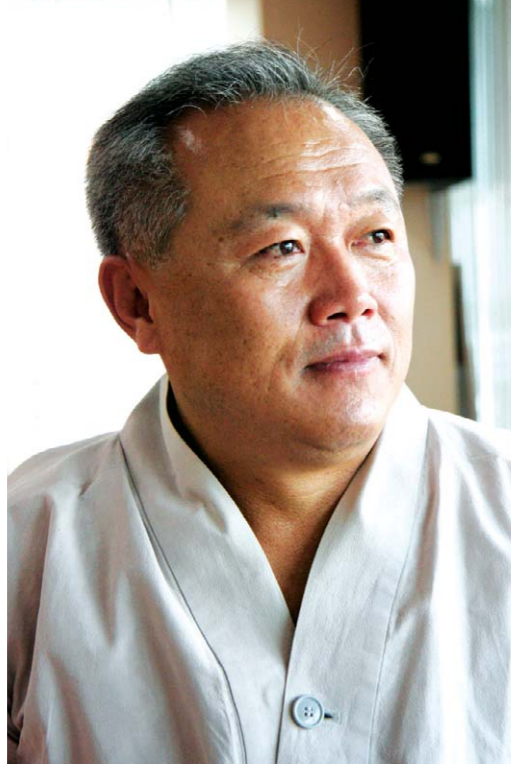


# “올바른 인성 갖춘 참인재 육성할 것”

■ 장명화 (사)우곡선원 선원장



“사랑이 충만한, 사람다운 사람의 심성을 가진 청소년을 육성하기 위해서 심성개발교육은 꼭 필요합니다.”

청소년기는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한다. 자아 정체성에 대한 혼란을 겪는 이 시기에는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고 수학을 배우고 참다운 지혜를 만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대 사회는 매마른 청소년의 정서를 해치는 폭력문화가 범람하고, 핵가족 사회는 가족 간 갈등의 골을 더욱 깊게 만든다. 방황의 늪에서 허우적대는 청소년들.

이 문제의 해답을 구하기 위해 (사)우곡선원을 이끌며 심성개발교육 활동으로 인재발사에 힘을 쏟고 있는 장명화 선원장. 청소년들의 인성을 회복하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바르게 심어주기 위해 장 선원장은 심성개발교육원을 설립하고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수련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마음동산 꾸미기’와 ‘청소년 인성정립’ 등의 과정은 명상, 선, 호흡법, 마음열기, 참 나를 찾아서 등으로 인성 교육을 이끈다.

“물질만능의 사고가 팽배한 현대사회는 미래의 불행을 예감하게 합니다. 또한 인성교육마저 부재해 꿈이 없는 청소년들을 양산하고, 학습의 어려움과 집단따돌림, 폭

## 사람이 희망이다

### 현장에서 듣는 인재양성 이야기

‘사람 키우는 일’에는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 투입한 액수에 상응하는 물품을 배출하는 자판기와 달리, 사람에 대한 투자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시작돼 유아·청소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인이 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청소년기다. 자아가 형성되고 인생관에 대한 고민이 시작되는 때가 청소년기이고, 이때 종교와 맺는 인연은 평생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청소년 불자 양성에 앞장서는 불자들이 만나 그들이 생각하는 ‘인재불사’에 대해 들어봤다.

력, 성문제 등 사회적인 병폐가 만연합니다. 이러한 때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스스로 자아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 미래의 주인공으로서 필요한 소양을 갖추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 선원장은 인성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강조하며 부처님의 정법을 바르게 회향하기 위해 명상을 통한 심성개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 중이다.

“학생들이 가장 좋아하는 명상법은 날숨 호흡 명상과 만다라입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돌아보며 마음의 안정을 느끼고 호흡을 지켜보며 자신이 살아 있는 인간임을 자각하는 시간입니다. 또 집중력 훈련도 가능한 것이지요.”

우곡선원 회원인 조미자 선생님은 사동초등학교 4학년 학급 학생들에게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학교 영재 선발에 절반 이상 선정되는 ‘이변’을 낳기도 했다.

“학생들은 성인에 비해 순수함이 많이 남아 있어 프로그램의 이해도와 체득이 높고 성품이 안정됩니다. 또한 대인관계가 좋아지며 기억력이 증대되어 성적도 향상되고 자신감이 자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기초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먼저 공부해야 합니다.”

장 선원장은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참 사람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소년 인성교육 전문수련기관인 심성개발교육원은 현재 교원직무연수를 받은 현직 초·중등 교사들이 회원으로 인회 교육지도자회를 결성하고 프로그램 및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먼저 교육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심성을 기르고, 이들이 불교의 입문으로 자라날 수 있는 인연을 맺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성개발교육원은 ‘마음동산 꾸미기’와 ‘청소년 인성정립’ 프로그램을 국가기관인 한국청소년진흥센터로부터 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다. 현재 ‘마음동산 꾸미기’는 부산 시내 각급 학교의 학생들이 우곡선원에 와서 한 달에 한번 참가중이며 ‘청소년 인성정립’ 프로그램은 각 학교에 방문해 학교 단위 별로 진행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2006년에는 부산시내 청소년 1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올해는 청소년 총 2만 명이 참여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장 선원장은 “학생들의 심성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것은 종교의 테두리를 넘어 참된 사회의 지도자이자 인재로 키워나가는 정도(正道)라며 ‘불성(佛性)의 씨앗을 심는 심성개발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성미기자

# “학생 눈높이 맞는 불교 수업 진행을”

■ 권진영 동대부여중 교법사



불교계 인재양성의 근간에는 종립학교가 자리하고 있다. 종립학교에 근무한지 14년 된 동대부여중 권진영 교법사. 처음 동국대부속고등학교에 발령받았을 때 ‘교법사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말씀을 전하는 성직이기에 아이들을 깨달음의 세계로 이끌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불교가 현실적인 좋은 영향을 주고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을 아이들에게 부여해 줘야 불교적 인재가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다.

“박제화 된 종교 그대로 전달만 하는 것은 제대로 된 불교교육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권 교법사도 처음 부임했을 때는 부처님의 말씀, 불교 교리를 전달해 깨달음으로 이끌어주겠다는 생각에 지식 전달에만 치중했다. 종교 교과서의 교법사용 지도서도 만들었다. 그러나 아이들의 반응은 답답했다. “아이들에게는 딱 세상 이야기였던 거죠. 변화하는 세상을 가장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신세대들에게 구식방법으로 불교를 이해하라고 강요했던 거였습니다.” 그때부터 교과서를 초월해 아이들에게 불교의 씨앗을 심어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권 교법사의 고민이 시작됐다. 불교의 장점은 불교문화라는 생각에 아이들 교육에 불교문화를 접목시켰다. ‘사경’과 ‘사불’을 지도했더니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쉽게 집중했다. 이렇게 해서 ‘청소년 사경공모전’이 파리미타에서 시작됐고 벌써 10회를 맞이했다.

“불교교리에 대한 이해 없이 체험만 하다 보니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지혜, 부처님의 자비사상 등을 아이들에게 체득시키지 못하는 단점이 생겼습니다. 불교는 교육 원리를 다 가지고 있기에 마음의 평정, 직관적인 지혜가 어우러지는 수업방법을 찾아야 했죠.”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으로 ‘참선’을 개설했다. 참가한 아이들의 대부분이 ‘엄마가 시켜서’ ‘담임선생님이 권해서’라며 수동적인 자세였다. “지금 이 순간 네 생각이 너의 전체 삶이라고 설명하면서 참선을 통해 내 삶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마음과 정신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권 교법사의 참선수업은 3시간 동안 20여 분만 참선을 하고 나머지는 불교를 통한 비전제시로 채워진다.

권진영 교법사는 청소년들에게는 사성제 팔정도 등 단순한 교리 전달이 아니라 교육과정이나 방법론을 현대적으로 개선해 불교하면 얻는 이익이나 영향을 직관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삼법인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는 그 자체로 훌륭한 불

교교육 과정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불교의 교수방법론은 계정해를 근간으로 이뤄집니다. 초등학생은 나쁜 짓 안하고 착하게 사는 것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이 ‘계’입니다. 중학생에게는 참선을 중심으로 수준에 맞는 명상법을 가르치며 마음의 평정을 찾는 방법을 알려주면 됩니다. 이것은 ‘정’에 해당되지요.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부처님의 말씀을 지혜의 겹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바로 ‘혜’입니다.”

권 교법사는 계정해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방법을 총괄적이고 체계적인 신도교육 과정에도 반영해야만 불교적 인재양성 생산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자산관리 전문가 우승택씨의 유익을 투자에 접목시킨 강의가 바로 ‘불교적 비전’이라는 권 교법사는 “불교와 현실을 회통시켰기 때문에 부처님이 수기 내린 것만큼의 비전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어떤 전공을 선택하든 청소년기에 접했던 불교가 지혜섬으로서 있는 자리에서 불교적인 가피를 얻을 수 있는 힘을 길러준다면 중등교육에서 더 바랄게 없다”는 권진영 교법사의 자그마한 소망을 들으며 불교인재양성의 미래를 그려본다. 강자연기자

## 현대불교신문 창간13돌을 축하합니다



대한불교관음종 사부대중 일동

## 불교음해 왜곡보도



우리 관음종은  
조선일보 구독을  
거부한다.